마음은 끝없는 빛의 공간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㊺ 상음(想陰)의 구우(區宇)

〈원문〉 "아난아, 삼마지를 닦다가 수음(受陰)이 다한 자는 비록 번뇌가 다하지는 못했으나 마음이 그 형상을 떠난 것이 새가 새장을 벗어난 것과 같아서 이미 범부로부터 위로 보살의 60 성위(聖位)를 지나고 의생신을 얻어 가는 곳마다 걸림이 없으리라. 비유하건대 어떤 사람이 잠을 자다 잠꼬대를 하되 잠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말을 하지만 그 말이 음운이 또렷하여 곁에 깨어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을 알아듣게 하는 것과 같나니 이를 상음(想陰)의 구우(區宇)라 하느니라. 만약 움직이는 생각이 다하고 들뜬 생각이 없어져 깨달은 밝은 마음이 진로의 때를 제거하면 나고 죽는 생사의 자초지종을 환히 비추나니 이것이 상음이 다한 것이니라. 이 사람은 곧 번뇌탁을 초월하게 되느니라."

〈강해〉 고도의 삼마지(禪定)를 닦는 중에 마음이 형상(몸의 구조적 한계)을 벗어나는 것이 새가 새장을 벗어난 것과 같다는 비유가 나왔다. 수음(受陰)이 다한 경지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때 이미 〈능엄경〉에서 제시하는 수행의 지위 점차(地位漸次)인 60계위(六十階位)를 지나 생신(意生身)을 얻어 자유로운 왕래를 하게 된다고 하였다. 의생신이란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몸을 말한다. 뜻(意), 곧 의식에 의하여 생기는 몸이다. 범어 마노말야(摩奴末耶 :Manomaya)를 음사(音寫)한 말로 의성신(意成身)이라고도 한다. 이 대목에서 말한 의생신을 얻는다는 것은 분단생사(分段生死)를 하지 않고 변역생사(變易生死)를 한다는 뜻이다. 수음(受陰)이 다했으므로 수음의 속박을 벗어나 생각대로 시방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보살이 중생을 교화 제도하기 위한 원력이 있을 때 변역생사를 하여 제도할 중생이 있는 곳으로 간다고 한다. 중생들은 자신이 지은 업인(業因)을 따라 태어나 신체적 환경의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수명의 제한이 있다. 삼계(三界), 육도(六道)의 중생들이 대부분 분단생사를 한다. 변역생사는 삼계 밖의 생사로 분단생사를 바꾸어 비원(悲願)의 힘으로 받는 생사다.

수행의 목적을 '생사해탈'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불교는 한마디로 해탈사상(解脫思想)이다. 이 말은 깨달음(覺)이란 키워드와 같은 뜻이다. 마치 악몽에 시달리던 사람이 잠이 깨어 악몽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다. 괴로움을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고 열반인데 상음이 다하면 그 근사치에 이른다는 것이다. 상음(想陰)의 구우(區宇)를 잠꼬대에 비유하여 말했다. 잠꼬대가 꿈에서 나오는 것이며 자신은 모르고 하는 말이지만 곁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을 때 잠꼬대의 말 음운이 분명하여 정상적으로 알아듣는다는 말이다. 몽경(夢境) 속에 내 몸이 있다면 그것도 의생신에 속한다. 범부와 불·보살의 경우가 다르지만 죽은 망자(亡者)를 영가(靈駕)라 부를 때 그 영가도 일종의 의생신으로 본다. 또 부처님의 천백억 화신도 의생신의 영역이다.

상음(想陰)이 결국 생각이기 때문에 상음이 다하면 오탁(五濁) 중에 번뇌탁(煩惱濁)을 초월하게 된다고 하였다. 〈능엄경〉에서는 오탁이 소멸되는 것을 오음이 하나하나 다하는 것에 배대(配對)하여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또 음(陰)이 다할 때 단계적으로 빛이 난다는 것도 〈능엄경〉 특유의 표현이다. 마음이 빛(心光)이라고 하는 말은 〈화엄경〉 〈법화경〉 등 대승경전에서 자주 하고 있는 말이다. 또 선게(禪偈)에도 심월(心月)이니 광탄(光呑)이니 하는 말이 나온다. 〈능엄경〉에 의하면 선정을 닦는 것은 마음속의 빛을 개발하는 것이다. 마음속이 빛이 통째로 드러난 것이 법신 비로자나불이다. 광명변조(光明遍照)라 번역하듯이 마음이 끝없는 빛의 공간이라는 말이다. 중생의 번뇌는 심광(心光)을 차단하는 것이다. 겁탁을 초월하면 빛의 세계가 열리게 된다. 그래서 무량수(無量壽), 무량광(無量光)의 부처님 세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정토수행의 아미타불 명호가 바로 무량수 ·무량광의 뜻을 가지고 있다. 영원한 생명의 빛을 따라가겠다는 서원으로 '아미타불' 염불을 하는 것이다. 방편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염불이지만 실제는 자기 마음의 빛을 개발하는 자성염불(自性念佛)인 것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32진로 수행 통해 권능 갖춰



구선 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㊺ 4, 5번째 삼각형

한물건이 맺히면 하단전을 중심으로 삼아서 중심과 중극을 삼각형으로 연결한다. 손가락으로 수인을 짓는다. 그런 다음에 중심과 하단전을 수직으로 연결하고 중극과 하단전을 사선으로 연결한다. 이 라인은 연결해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에너지의 집약이 강력하게 이루어진다. 중심에서 중극으로 숨을 들이쉰다. 숨을 내쉬면서 중극에서 하단전, 중심에서 하단전으로 동시에 내려간다. 세 기점을 삼각형으로 연결한 다음 한물건에 집중한다. 한물건에 머물러서 중심과 중극을 연결하고 있는 삼각형의 내부 공간을 들여다본다. 간, 비장, 담, 췌장이 함께 순화된다. 세 번째 삼각형을 운용해서 배꼽과 하복부의 상(像)이 갖추어진다.

네 번째 운용 경로는 하단전, 명문, 중극 경로이다. 명문의 쿤달리니에너지와 중극의 교감신경 에너지, 척수액의 슈슘나에너지, 하단전의 부교감신경 에너지를 운용하는 경로이다. 자율신경계를 순화하는 기능이 있다. 32진로 수행을 통해 권능을 갖추게 된다. 하나의 경로가 열릴 때마다 거기에 따른 권능이 생겨난다. 몇 개의 삼각형을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식의 발현이나 자기 활용의 범위가 달라진다. 중생이 부처님의 형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 가야 할 수행이다.

수인을 짓는다. 옴자 발성으로 하단전과 명문, 중극을 함께 울려준다. 중극의 교감신경 에너지가 명문의 쿤달리니 에너지와 합쳐지고 하단전과 명문 사이에 열기로 이루어진 터널이 생겨난다. 명문의 쿤달리니가 하단전의 한물건과 서로 반응하고 한물건이 명문으로 이동한다. 명문에 머물러서 꼬리뼈순화를 행한다. 투쟁심과 경쟁심을 제도한다. 한물건에 집중한 상태에서 명문과 중극을 연결하고 있는 삼각형을 올려다본다. 삼각형의 내부 공간을 마음 거울로 삼아서 안팎으로 접해지는 경계들을 비추어본다. 이 경로의 운용을 통해 허리부의 상(像)이 갖추어진다.

다섯 번째 경로는 황정, 명문, 회음 라인이다. 이 라인을 통해서는 꼬리뼈 순화를 마무리하고 채약을 이룬다. 한물건이 하단전과 명문 사이를 내왕하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부터 툭툭 걸리는 느낌이 생겨난다.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 신장과 한물건 사이에서 서로 당기는 느낌이 생겨난다. 툭툭 걸리던 자리에 한물건을 안착시키면 신장으로부터 선천기가 표출된다. 신장의 선천기와 한물건이 합쳐지면 한물건이 뜨겁게 달아오른다. 그 자리가 황정이다. 황정이 세워지면 명문과 회음을 삼각형으로 연결한다. 수인을 짓는다. 황정, 명문, 회음을 연결하는 삼각형을 인식한다. 명문과 회음 라인을 주시하면서 꼬리뼈에서 일어나는 증상들을 지켜본다. 엄청난 냉기가 표출되고 경쟁심이나 투쟁심, 욕정이 일어난다. 삼각형으로 비춰준다. 꼬리뼈에 내장되었던 업식들이 제도되면 황정과 회음 경로를 연결해놓고 삼각형의 내부 공간을 주시한다. 양기가 동하면 그 느낌을 삼각형으로 비춰주고 욕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그러다 보면 회음부에서부터 쩌르릉하는 자극감이 생겨난다. 회음부가 자극되면서 황홀감에 빠지게 된다. 이때의 황홀감은 전립선과 두정부 피질이 반응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시각적으로도 특이 증상이 나타난다. 시야가 온통 백색 빛으로 채워지기도 하고 꽃잎이 휘날리는 듯한 현상을 보기도 한다. 이 현상은 시상 내섬유막이 자극되면서 생기는 것이다.

이런 현상들도 삼각형의 내면으로 비춰준다. 회음부에서 올라온 자극감이 황정과 합쳐지면 황정이 또다시 뜨거워진다. 그 상태도 삼각형으로 비춰본다. 이것이 다섯 번째 경로를 운용하면서 채약을 하는 방법이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흠 스님의 〈능가경〉 강설

㊺ 망념

보고 듣고 말하는 것에 속지 말아야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아주 깊은 곳에서 눈물이 핑 돌면서 예전에 한 번도 인식하지 못한 감격이 일어야 하지만, 무엇을 감격해야 할지 모르니 다른 말들이 아무 소용없어진다. 이 말 이전이야 그 놈의 집 앞마당이었으니 선뜻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놈이 저절로 자신의 앞마당에서 나와 목을 내밀어 주니, 그때가 단번에 목을 벨 기회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그때 그 놈의 목을 벨 용기를 내지 않고, 주춤하면서 기회를 놓치면, 엉뚱한 방향으로 수행을 하면서 목이 저절로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되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 '무엇이 부처입니까?'의 물음이 진심을 다하여 얻었다면, 그는 말에서 분명 자신의 근원을 보겠지만, 그저 지나가는 말처럼 던졌다면, 어떠한 답에도 반응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나'라는 이름의 사용처가 어디인지를 모르고, 그저 앞에 나타난 그 모습에 다른 이가 붙여준 나 아닌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알고 있었으니, 돌아가고 싶겠지만 돌아갈 방법을 모두 잊은 탓에 기약이 요원할 뿐이다.

수억 겁을 생멸한다고 누가 나의 진짜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아니니, 허송세월이 참으로 안타깝고 안쓰럽지만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다. 유일한 나의 일은 그가 가장 싫어하는 말을 해야 하니, 서로가 다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로 살아온 육신을 그가 아니라 해야 하고, 그가 열심히 일궈낸 모든 것들을 그의 것이 아니라 해야 하고, 살아오면서 어렵게 쌓아온 명성과 존재감조차도 그가 아니라고 말해야 하니, 누가 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누가 이 말의 뜻을 알고, 누가 이 말에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같이 춤을 추며 이야기꽃을 피우겠는가!

모두가 자신을 찾아 떠나겠지만, 누구도 자신과 대면한 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 세상에 돌아다니는 불필요한 문장과 언어에 속아 시간을 보내더라도, 나중에는 누구에게도 원망할 수 없으니, 당장 쓸모없는 행위는 멈추고, 불필요한 것은 버리고, 고요히 앉아, 자신이 주워 모은 것들이 자신의 늙음과 병듦 그리고 죽음에 대해 무엇을 해결해주었는지를 보면,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근심만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항상 바르게 움직였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었고, 언제나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실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 처음의 출발이 실수인 줄을 알아야 움직여서 되는 일이 아닌 줄 알게 되지만, 처음부터 구하는 것으로 앎을 얻으려 한다면, 아무리 많은 생을 살더라도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일일 뿐이다.

그렇다고 단지를 던져 부숴버리면 된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채우는 것도 병이지만, 부수는 것도 병일뿐이다. 지금 있는 그대로 변함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에는 내가 따로 그것에 대해 사유할 것이 없음을 알아야 하니, 그 사유할 것이 없는 바른 사유는 다시 다른 견해를 내지 않게 한다. 그렇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그것에 대한 다른 상태를 생각하거나 사유하게 되면, 그는 목이 달아나는 꼴이지만 목이 날아간 줄은 모를 것이다. 목이 날아가고 수행에 진전이 있기를 바라겠지만, 어찌 송장이 살아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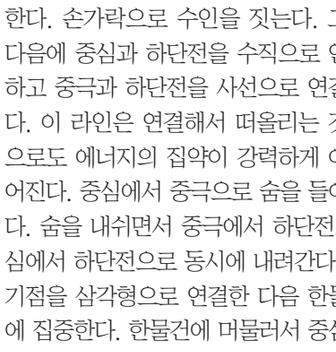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것보다 모름에 대한 믿음이 더 현명할 수 있으니, 지혜가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간택 없이, 답답함을 숨겨 놓은 보물처럼 여기고, 인내하여야 밝은 태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조그마한 지견에 마음을 움직이면, 모든 일에 법으로 대입하는 잘못된 견해를 만들게 되니, 항상 조심하여야 한다. 삼계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일에는 어떤 사람에 의해, 법이라 말할 수도 없고, 법이 아니라 말할 수도 없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하는 자를 자세히 알아야 속지 않게 되고, 보고 들은 생각들이 일시에 안개처럼 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괴로움이 내가 존재하지도 않은 이미지를 가짐으로써 생긴 것이라 알고, 부족함이나 어떤 상태가 바르게 처리되지 않아 생긴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사찰에 난무하는 눈탱이!

삭발에 가사장삼을 입은 스님을 보는 일반업자들의 시선들! .... 세상 물정에는 좀 어두운분들이겠거니 하며 눈탱이 염불시설들로 가득채움 눈탱이 : 속은 비어있는 그럴듯한 동남아 부품으로 가득채워 바가지를 씌우는 시설업자들의 비속어로 스님들은 여기에 거의 속음



눈탱이 시설의 표본

눈탱이 시설의 결점

1. 다루기 복잡하여 고장이 잘남 (A/S 불가)
2. 복잡한 기능으로 소리 기능이 분산되어 저질소리
3. 또한 염불이 힘들면 성대 질병과 스트레스 누적
4. 법당서 본사 견본과 법당 제품과 양손의 마이크로 스님 자신이 성능비교시 장난감 소리차이 확인

■ 본사 제품 : 마이크는 이태리 숍스제품, 디지털앰프 스피커는 MADE IN KOREA 확인

※ 특징 : 앰프 다루기 1초, 남해의 토굴부터 설악 신흥사 설법전까지 2천여 시설동안 단 한곳도 고장이 없었음. 명산대찰의 수천만의 시설과 소리비교시 장난감 성능차이(반드시 확인) 가격 기존시설과 $\frac{1}{3}$ 차이 확인, 앰프 스피커 최신디지털

▣ USB겸용 디지털앰프 법당스피커 2개, 법당 밖 스피커 2개,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시설가격 190만원부터~ 무한대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69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시중에 없음



가격 ₩ 80만원



최신 디지털 앰프 USB겸용 유·무선겸용 마이크 4개 동시사용

대형스피커 8개까지 연결가능



염불전용스피커

장엄하고 은은한 소리재생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화답!

가격 ₩ 80만원



국내 최초

한국스틸 고건축

스틸 대웅전 스틸한옥 누각 산신각 박물관 공용화장실 안내소 전시장 문중제실 한옥인테리어 종각



국내 최초 법명사 스틸 종각

초파일 산신각 특별 할인 판매 가로 2500/세로 2200=1500만원

(석가래 부연 스틸기와 내부상단 한옥문 바닥장판 전기 기본)

저렴한 금액 편리한 유지보수 화재에 강함 간단한 조립구조

문의 010-5023-5050